

동해해수청(주문진항, 거진항) 찾아가는 선원이동민원실 운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원거리 지역 선원들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6월 18일 강릉시 주문진항 해상산업노동조합 사무실과 고성군 거진항 고성선원복지회관에서 '찾아가는 선원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민원실은 해당 지역의 조업시기와 민원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연간 총 4회 운영하며, 선원민원 업무인 해기사 면허발급 및 갱신, 선원수첩, 취업규칙 신고뿐만 아니라 선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 고충상담도 실시한다.

따라서, 올해 두 번째로 운영되는 이동민원실을 통해 조업에 바쁜 어민들이 멀리 떨어진 해양수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김왕식)은 “선원 등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 발굴과 선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왕식 (033-520-6141)
		담당자	주무관	김명은 (033-520-6145)